울창한 숲길 지나 만나는 '원융한 참된 실체'

부안 내소사
'천년 할머니 당산나무'와 '꽃문살'

동욱 | 작가

내소사는 나무가 좋다.
일주문 지나 곧게 뻗은 전나무 7백 그루가 만드는 울창한 숲길 터널이 좋다. 오대산 월정사, 광릉 국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이란다. 전나무가 뿜어내는 시원한 향기는 덤으로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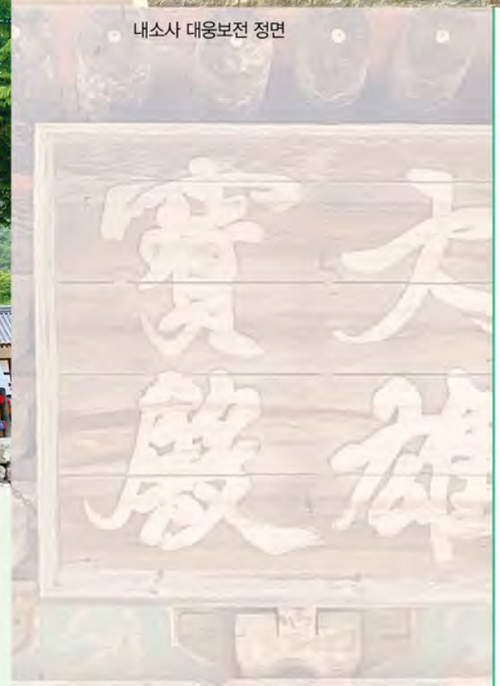
내소사 경내에선 요즘 쉽게 찾을 수 없는
당산나무를 볼 수 있어서 좋다.
나무 높이가 20미터, 둘레가 7.5미터인 느티나무는 천 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름도 정겨운 '할머니 당산나무'

내소사 경내 300살 보리수 나무

천년 느티나무 할머니 당산 나무

내소사 대웅보전 정면

내소사 대웅보전 정면 현판과 내부 불상



옆에 있는 300살 보리수나무가 '초여름에 향기로운 꽃이 만발해 많은 벌떼가 공양하고 간다.'며 자랑하지만 애당초 천년 할머니 당산나무와는 비교가 안 된다.

부처님 도량에 토속신앙이 자리 잡은 건 불교와 민간신앙의 융합이다.

해마다 음력 대보름이면 내소사에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바라는 당산제가 열린다. 할머니 당산나무가 있는 내소사 경내에선 스님들이 불교식으로, 일주문 밖에 있는 700살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선 주민들이 유교식으로 연다.

불교와 토속신앙의 융합에다 유교식 제례까지, 내소사 당산나무는 종교를 아우른 '원융한 참된 실체'이다.

왼쪽부터
내소사 대웅보전 꽃문살 2쪽
–
내소사 대웅보전 꽃문살

할머니 당산나무를 뒤로하고 대웅보전을 마주 보면 색이 날아간 현판이 모습을 드러낸다. 단청을 더 이상 칠하지 않아 화려하지 않지만, 나무색이 담아 낸 세월과 고졸미를 느낄 수 있어 오히려 더 좋다.

대웅보전에서 순례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문짝마다 그려진 꽃문살 무늬다.

"꽃문살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우리나라 장식무늬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바라기꽃과 연꽃, 국화꽃의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 새긴 모양이 문마다 다르고 섬세하고 아름다워 전설 속의 목수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엿볼 수 있다."

"꽃 한 잎, 한 잎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데, 여섯 꽃잎을 조각하며 기묘하게 맞추어 나간 연속 문양 솜씨는 신기에 가깝다"고 내소사 홈페이지는 적고 있다.

"수백 년 세월에 채색은 지워졌지만 나뭇결은 그대로 도톰하게 살이 오른 것 같아 더욱 아름다운 꽃무늬"

그 무늬를 하나하나 새긴 장인의 공덕이 대단하다.

왼쪽부터
내소사 대웅보전 물고기를 문 용
–
대웅보전 내부 공포

「…한 송이 한 송이마다 금강경 천수경을 새겨 넣으며
풍경소리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냈을
누군가의 소명을 살그머니 엿보고 싶다
매화 국화 모란 꽃잎에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새겨 넣었을
그 옛날 어느 누구의 곱다란 손길이
극락정토로 가는 문을 저리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하는 것인지…」
〈김혜선, 「내소사에서 쓰는 편지」, 2019. 중 일부〉

꽃무늬에 감탄하며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데 예상 밖이다. 오랜 세월이 느껴지긴 하지만 단청의 화려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들보를 90도로 연결하는 보에는 용의 모습을 조각했는데,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이 재미있다. 용이 물고기를 잡아챌 만큼 물기운이 많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 화재를 예방하려는 일종의 부적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한쪽 보에 빈 공간이 눈에 띈다. '포'가 들어 있어야 하는 데 빠진 탓에 '공포'가 된 것이다. 포는 기둥 위를 가로지른 보 위에 나뭇가지처럼 나와 있는 것으로 보와 서까래 사이를 장식하는 거라고 한다. 하나면 일포, 세 개면 삼포 이런 식으로 부른단다.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 단청

목침이 빠져 공포가 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선조들은 흥미로운 전설로 승화시키고 있다.

조선 인조 때인 1633년 청민 대사가 절을 건립했는데, 호랑이가 변한 대호(大虎)선사가 법당을 지었다는 전설이다. 대웅보전을 짓는 목수가 대패로 목침을 수없이 만들어 노적만큼 쌓아 올렸는데, 목침만 만드는 게 얄미워 사미승이 목침 하나를 감추었다. 목침 깎기 3년이 되던 날 하나가 모자라자 목수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청민 대사는 그래도 법당을 지으라고 했고, 쇠못을 사용하지 않은 대웅보전은 포가 하나 빠진 채 완성됐다는 것이다.

내소사 선인당과 능가산 구름

아름다운 단청은 관세음보살이 오색찬란한 새로 변신해 건물 안을 날아다니며 직접 칠했다는 전설도 더해진다. 천정에는 연꽃과 모란 같은 꽃들이 네모 칸에 연속으로 그려져 있고, 선학 그림이 바깥 네모 칸을 차지하고 있다. 부드럽고 화려한 장식이 나무 건물에 생기 넘치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웅보전 법당 천정에 단청 문양을 배치할 때는 대칭과 반복의 원리, 고귀한 중심 문양을 겹겹이 에워싸는 중중무진의 원리로……바깥에서 중심으로 선학–모란과 연꽃–팔엽 연화문–팔엽 연화문의 순서로 깊어지게 배열했다. 정법계진언을 봉안하는 팔엽 연화문 문양의 내용적 깊이를 예술의 조형원리로 극대화하여 장엄의 지향점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한다.……결국은 청정한 마음에 있다. 교의와 예술의 조화로움의 극치를 이룬 산사 단청 장식의 원형으로 손꼽을 만하다.……한국 산사 법당 천정은 예술과 종교 교의, 수리적 기하학이 통일 구조를 이루고 있는 법계 우주다."
〈노재학, 『한국의 단청1: 화엄의 꽃』, 미진사, 2021, p.276〉

천년 나무와 단청 장식이 살아 숨 쉬는 곳.
우리네 토속신앙과 유교, 불교가 융합된 종교 소통의 증표.
이곳에 오면(來) 다시 되살아나는(蘇)…이름 그대로 내소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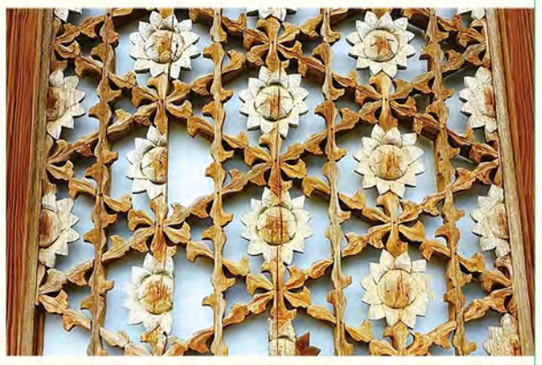
내소사 선인당 내소사 현판

내소사에서 만나는 소생(蘇生)의 지혜

속도를 덜어내고 감성을 채우는 길

모든 길은 저마다의 표정을 지닌다.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 남쪽 기슭에 자리한 내소사(來蘇寺)로 향하는 길은 유독 깊고 그윽한 표정으로 운전자를 맞이한다. 번잡한 30번 국도에서 빠져나와 내소사로 접어드는 순간, 길은 폭을 좁히며 주변 풍경과 하나가 된다.

자동차는 이 길 위에서 더 이상 속도를 자랑하지 못한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선형과 나지막한 오르막은 운전자의 발에서 힘을 빼고, 대신 창밖을 바라볼 여유를 선물한다. 울창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늘과 햇살의 교차는 단순한 주행을 '빛과 그림자를 통과하는 사색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잘 설계된 도로가 어떻게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지 보여주는 '도로가 주는 선물'의 생생한 현장이다. 길은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는 기능적 수단을 넘어, 그 여정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체험으로 만드는 서막(序幕)이 된다.



길의 끝은 사색의 시작점

자동차 길이 끝나는 지점, 넉넉하게 마련된 주차장은 단순한 편의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곳은 현대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를 잠시 세워두고, 천년의 역사가 깃든 사찰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전환의 공간'이다. 잘 구획된 주차 공간과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한 동선은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도로 인프라의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지점이다.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행위는 잠시 세상의 소음과 단절하는 의식과도 같다. 우리는 아스팔트와 엔진 소음의 세계에서 흙과 바람 소리의 세계로 들어선다. 도로의 끝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다. 이 사려 깊은 공간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내소사와 마주할 준비를 마친다.

길의 끝에서 천년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주차장에서 일주문을 지나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600m의 전나무 숲길이 펼쳐진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만드는 고요한 터널은, 앞서 자동차 길 위에서 차분히 가라앉힌 마음을 더욱 깊은 평온으로 이끈다. 만약 고속도로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이곳에 도착했다면, 이 숲길이 주는 장엄한 고요함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숲길 끝에서 마주하는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291호)의 단아한 모습과, 문살 하나하나에 피어난 연꽃과 국화 무늬는 길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감성의 절정이다. 화려한 단청 대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 나뭇결, 정교한 손길로 생명을 불어넣은 꽃문살의 아름다움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온 이에게만 그 속살을 온전히 보여준다. 결국 내소사로 향하는 길은, 사찰이라는 문화유산을 가장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리 조율하는 '움직이는 명상 공간'인 셈이다.

소생(蘇生)의 여정을 완성하다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내소사의 이름처럼, 그 소생의 경험은 사찰 경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국도와 지방도를 달리는 그 순간부터, 자동차를 세우고 흙길을 밟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천년의 시간을 마주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여정이 하나의 길 위에서 완성된다. 내소사로 향하는 길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그것은 단지 빠르고 편리한 길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를 잇는 길이다.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풍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단순한 운전자를 넘어, 문화의 향유자이자 사색하는 여행자가 된다. 이처럼 내소사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지이자, 우리 도로인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이정표다.